

우선 북한의 취약한 어린이들을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전보다 더 빠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는 없지만, 퍼스트 스텝스의 감사 인사와 함께 그 어린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감사의 미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콩 우유를 마시고 있는 어린이들의 피부와 영양 상태 및 성장 속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 오천 여명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어린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퍼스트 스텝스 대표 수잔 리치와 기금 마련 자원봉사자 켈리 쉬한(Kelly Sheehan)은 지난 5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남포와 원산에 있는 콩우유 생산 기지 및 평양으로 가는 길목의 형제산에 새로 지어진 콩 우유 생산 기지를 둘러 보았습니다.

새로운 형제산 프로젝트는 역동적인 선교 마인드로 가득한 1500여명 한인성도들의 그레이스 한인 교회(비씨주 뉴웨스트민스터 소재)의 격려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레이스교회와 형제산의 지역 인사 및 형제산 어린이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형제산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큰 압력솔처럼 콩을 짜서 콩 우유로 만드는 바이타 카우라는 고 에너지 효율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 기계는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의 어린이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양의 콩 우유를 생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1대의 바이타 카우를 설치했으며, 곧 바이타 고트도 첫 가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바이타 고트를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Malnutrition Matters와 함께 계속 일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바이타 고트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기 없이도 가동할 수 있으므로,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콩 우유를 생산할 수 없던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는 올해 말까지 4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급식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퍼스트 스텝스 이사들의 낙관적인 희망에 따라 5만 명까지 늘렀다가 이번 북한 방문 여행 후 6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다소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12대의 바이타 카우(대당 7천 5백달러)를 보내고, 인도에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올해 말에 12대의 바이타 고트(대당 5천 달러)를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늘어나는 기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60톤의 메주콩을 추가로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가 급식하고 있는 만 오천 명 외에 추가로 4만 5천명의 어린이들 에게 급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전이지만, 우리가 모두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식량계획(WFP)의 최근 리포트에 의하면(2005년 5월), 6세 이하 북한 아동 220만 명이 만성 영양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발육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심각한 영양 결핍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북한은 젊은 세대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과 기아상태는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WFP 리포트는 최근 몇 달 동안 對 북한 식량 원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아사태를 예방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특별히 미국과 북한간의 북핵 문제로 인한 냉각 상태에 기인합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이 문제에 관해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직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절실히 필요한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Kelly 의 일기

5 월 21 일 토요일:

만약 한달 전 누군가 나한테 북한에 가볼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바로 그 낯선 나라를 가기 위해 밴쿠버 공항에 와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지난 4 월 초 토요일 아침,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First Baptist 교회에서 있었던 여성 조찬 모임에 참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의 초청 인사는 수잔 리치였는데, 그녀는 북한의 영양 결핍

어린이들에게 급식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퍼스트 스텝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녀는 2000 년 북한을 방문 했을때 영양 실조로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후부터 계속 기도했다고 한다. 수잔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수잔의 그러한 간증에 깊은 감동을 받은 나는,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바치겠다는 비슷한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곤 곧바로, 몹시 사랑스럽고 배가 고픈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5 월 22 일 일요일:

북경 도착. 비행기 연착. 시차 17 시간. 잠자리에 듦.

5 월 23 일 월요일:

너무너무 바쁜 북경. 차량들은 보행자를 위해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그런 차량들이 엉킨 거리를 잘도 지나간다. 마치 회전문처럼 모든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오늘 우리의 주업무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사증을 받아오는 것이다.

5 월 24 일 화요일:

평양까지 비행기로 날아가는 데에는 겨우 한 시간 밖에 안 걸린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세상 같다. 차량을 보기 힘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광고 간판도 없고 단지 체제 선전 구호와 그림들만이 있을 뿐이다. 수잔과

나는 어린이 영양 연구소의 몇몇 관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였고 퍼스트 스텝스의 콩 우유 프로그램에 부가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 결핍을 막아줄 미세 영양 철분 보충제인 스프링클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5 월 25 일 수요일:

평양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걸리는 서해안의 남포로 향했다. 콩 우유 생산 기지를 둘러본 다음에 남포 어린이 집과 남포 고아 유치원을 방문했다. 그 사랑스런 작은 얼굴들이 지금도 눈 앞에 아른거린다. 고아원 원장은, 일년 이상 퍼스트 스텝스의 콩 우유를 먹어온 어린이들은 볼이 더 통통하고 키도 더 빨리 크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 우리는 평양 외곽의 형제산 지역에 새로 지어진 바이타 카우 생산 기지를 방문했다. 뉴 웨스트 민스터에 있는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보내온 정성 어린 헌금으로 이 기지의 바이타 카우 기계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5 월 26 일 목요일:

평양을 떠난 한참 후 동해안에 있는 원산에 도착했다. 어두컴컴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이 계속되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고 난 후였다.

5 월 27 일 금요일:

원산 어린이 음식 공장과 어린이 집, 그리고 고아 유치원을 방문했다.

방마다 가득했던 배고픈 어린이들의 얼굴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 보내신 까닭은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며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음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5월 28일 토요일:

북경으로 가서 밴쿠버로 오는 비행기를 갈아 탔다. 나는 많은

감정과 질문들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 원하시는 곳은 바로 그 곳이 아닐까? 그의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곳은 바로 그 곳이 아닐까?